

자 본 에 서

공 유 지 로

빈 고

조 합 원 교 육

일시 : 2026년 6월 27 (토) 오후 2시

장소 : 서울갤러리(서울시청 지하2층)

2026년 2차 신규조합원 교육 및 모임

빈고에 대해 묻고 말하기

빈고는

무엇을 하고 있는 곳일까?

빈고의 역사와 운영을 살펴보고,

빈고의 철학과 원칙을 나누고,

궁금한 것을 묻고,

우리의 생각을 말해봅시다.



일시

2026.6.27(토)
오후 2시-5시

장소

서울시청 내
서울갤러리 B2
워크숍룸

대상

25년 12월 이후
가입 조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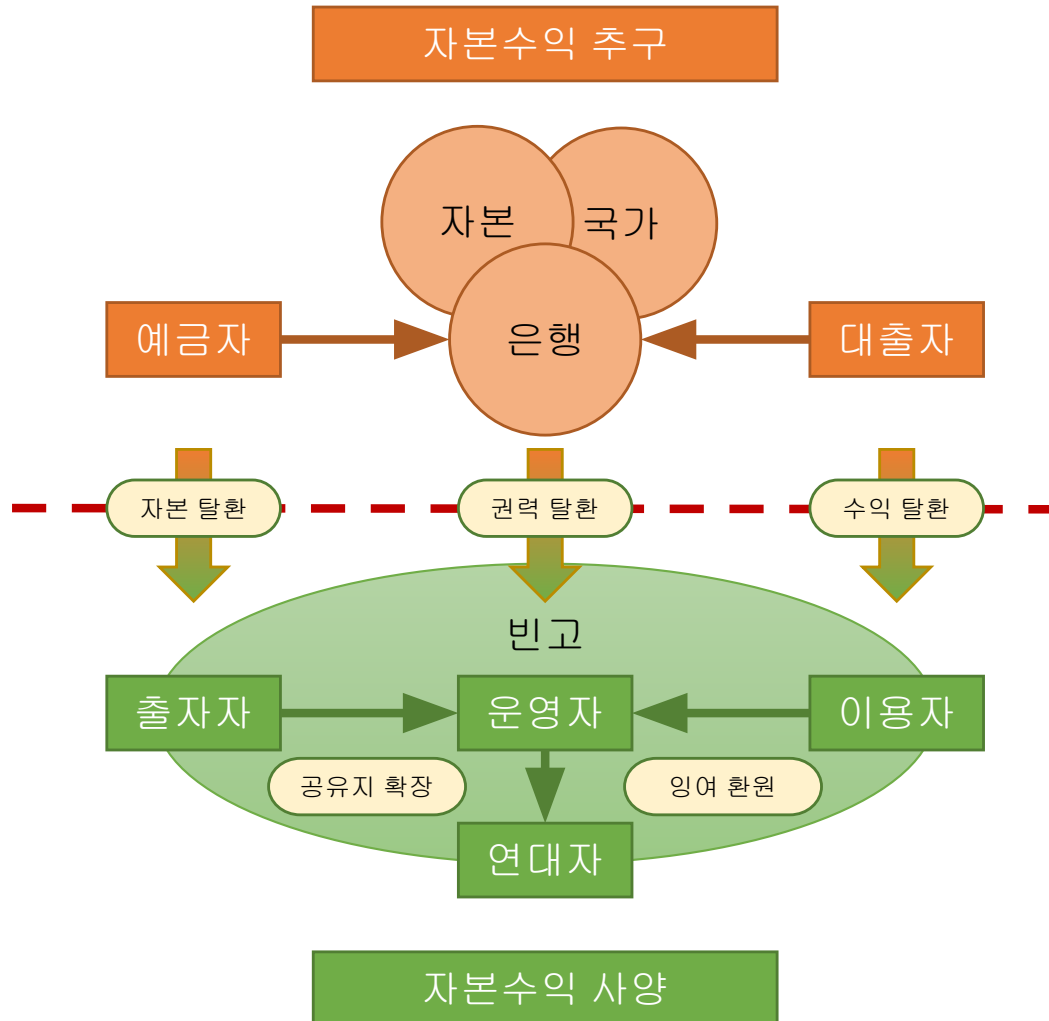
내용

빈고 소개, 질의응답,
빈고가 만드는
커먼즈 토의

순서

- 빈고의 활동
 - 빈고의 4대 주체와 활동 : 출자, 이용, 연대, 운영
 - 공동체활동
 - 빈고활동상
- 빈고의 역사
 - 빈고의 태동과 탄생 (08~11)
 - 빈고의 성장과 확장 (12~17)
 - 빈고의 정비와 성숙 (18~25)
 - 빈고의 전환(26~)
 - 빈고의 역대 공동체공간
- 빈고의 현황
 - 빈고 공유지=공유자
 - 빈고의 1년 스케줄
 - 빈고의 3대 가치 : 공유, 자치, 환대
- 빈고 홈페이지 사용법
- 자료

빈고의 4대 주체와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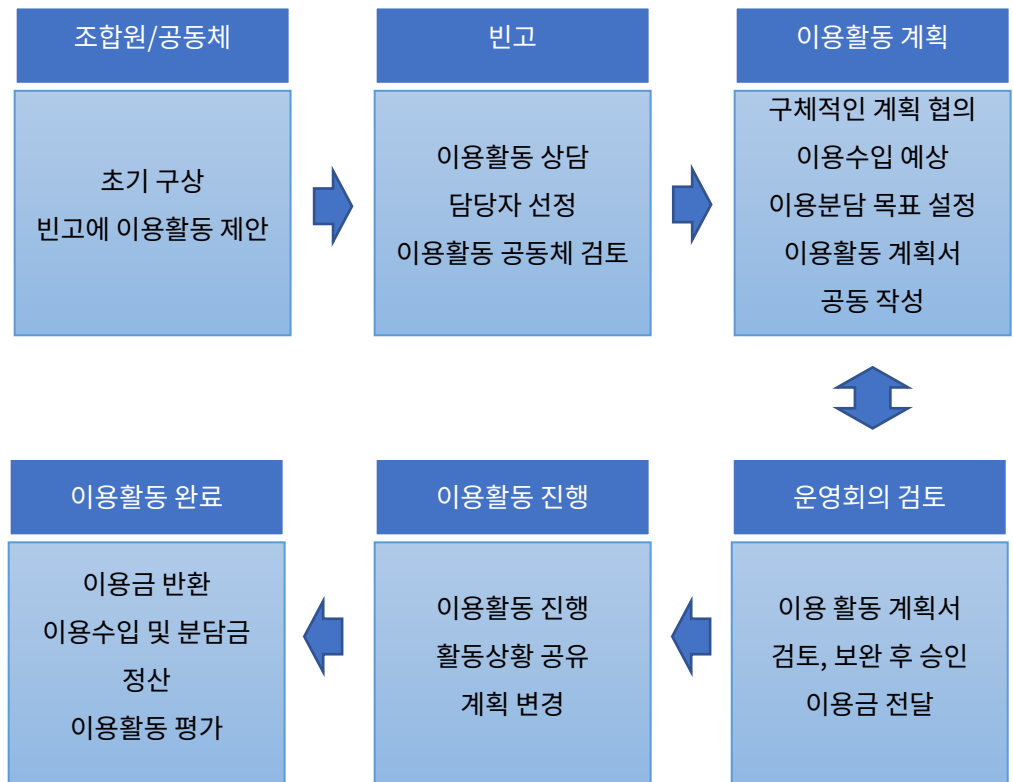


출자활동

- 출자
 -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자신의 돈을 자본에서 공유지로 전환하는 활동 (공유지전환율)
 - 한 달에 한 번 재정상황을 확인하고 계획하고 출자하는 습관 만들기
 - 예금형, 적금형, 비율형 등 본인 계획에 맞게 출자 가능.
 - 출자 반환도 자유롭게 : 빈고폰으로 연락하면 늦어도 다음날 본인 계좌로 입금.
 - 은행예금 이율 이하의 출자배당 적립 (출자지지금)
 - 출자는 예금이 아님. 손실 가능성 있음.
 - 출자내역확인 : 빈고 홈페이지 bingobank.org
- 출자선물
 - 다른 조합원에게 이체 : 대안화폐와 같은 기능
 - 모임비 나눠내기 (빈빵서비스)
- 공동체통장 참여
 - 공동체 출자 / 회비 납부 / 일괄 출금
 - 경비/급여 등 일괄 지급
- 차입
- 조합비 : 년 1만 빈 연말 차감

이용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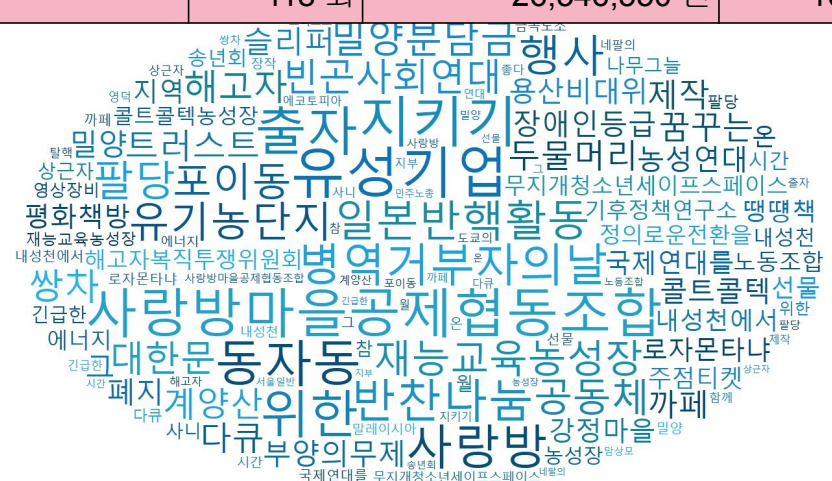
- 공유화폐를 공유자원으로 전환하는 활동
- 탈환한 자본수익을 공유하는 활동
- 공동체
 - 공동체공간이용
 - 공동체활동이용
 - 공동체회원이용
 - 공동체출자
- 출자자
 - 출자자이용
 - 출자금/출자지지금 이용
 - 이용활동팀
- 조합원
 - 빈쌘짓돈
 - 조합원펀드
 - 기타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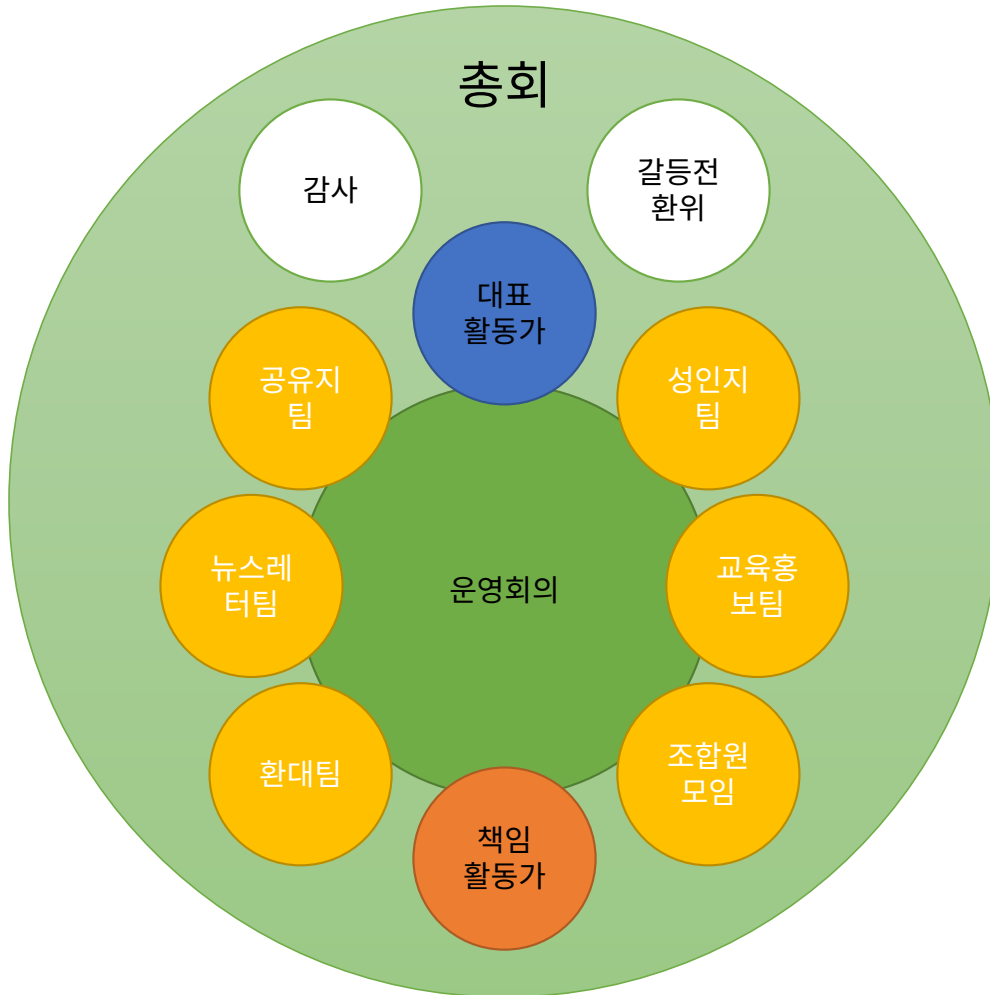
연대활동

- 모두가 자본수익을 사양하고
외부로 되돌려보내는 활동
- 지구분담금
- 공동체기금

구분	횟수	총액	비율
노동	27 회	5,181,550 빈	20%
공동체	13 회	2,210,000 빈	8%
여성, 성소수자	13 회	4,220,000 빈	16%
인권, 장애, 청소년	13 회	2,830,000 빈	11%
투쟁	13 회	2,300,000 빈	9%
환경, 기후, 탈핵	12 회	1,685,000 빈	6%
평화	10 회	3,460,000 빈	13%
국제	9 회	3,410,000 빈	13%
빈곤	8 회	1,250,000 빈	5%
총계	118 회	26,546,550 빈	100%



운영활동



- binphone 010-3058-1968
- binhomepage
- monthly budget sharing
- monthly newsletter
- general assembly / activists meeting
- operations meeting
- operations activity team
- member meeting
- operations meeting discord
- team activity discord
- operations activity telmeeting
- health care telmeeting
- binsoil combination telmeeting

공동체활동

<p>공유지 공동체 16곳</p>	<p>경의선공유지(서울 마포), 공룡(충북 청주), 두물머리(경기 양평), 들(서울 영등포), 명륜동쓰리룸(서울 성북), 빈땅조합(충남 홍성), 스튜디오402(충남 홍성), 에밀리,숲(서울 마포), 연구자의집(서울 마포), 오백집(서울 관악), 웬자족(서울 은평), 읽기의집(서울 마포), 감사모(전남 구례), 홍성키키(충남 홍성), 와밭 (경기 남양주), 담쟁이 (진안)</p>
<p>활동 공동체 25곳</p>	<p>건강계(서울), 공동체IT(서울 은평), 공유주거협동조합(충남 홍성), 국경을넘는계(서울), 그린집(대구), 남태령(서울), 담쟁이(전북 진안), 도토리회(충남 홍성), 미세마을(전남 해남), 별음밴드(서울), 빈고보투(충남 홍성), 빈연구소(서울), 솔방울커먼즈(서울 종로), 수수노래조합(전남 구례), 야채사냥꾼(서울), 에코토피아(서울), 여행자(서울), 은평공간(서울 은평), 이룸(서울 동대문), 인권센터건축계(서울), 일본빈고(일본), 커먼즈넷후원계좌(전국), 평화바닥(서울 마포), 해방촌사람들(서울 용산), 힐데와소피(서울)</p>
<p>특수 공동체 14곳</p>	<p>고양이(서울 은평), 공유공간너머(전남 순천), 카페해방촌(서울 용산), 노는사람(서울 용산), 다람쥐회(서울 영등포), 더스페이스(서울 용산), 독립프로젝트(서울 용산), 두꺼비(전북 전주), 모두들(경기 부천), 빈고공통장(서울), 파람이네(경기 양평), 해방촌연구소(서울 용산), 해방화페(서울 용산), 홍성키트(충남 홍성)</p>

빈고 활동상 BINGO AWARD

- 능력에 따라 출자하고
- 필요에 따라 이용한다!
- 기쁘게 연대하고
- 재밌게 운영한다!



1. 활동 기록

빈고 활동 계획서

1.1. 기본정보

이름	명니	출자금잔액	2,661,117 빈	이용금잔액	0 빈	공통계잔액	200,000 빈
본명	명니	출자활동횟수	124 회	이용반환횟수	0 회	공통계유입횟수	2 회
공동체	동물	출자반환횟수	23 회	이용활동횟수	0 회	공통계유출횟수	0 회
지역	충남 홍성	출자지지금	191,002 빈	이용지지금	0 빈		
가입일	2013/01/12	최대출자금	-	개인이용한도	5,000,000 빈		
		누적출자금	10,000 빈	누적이용금	0 빈		

1.2. 빈고 활동

날짜	내용	활동가	구분	시간
2023/06/03	2023 빈캠프 참가	명니	조합원모임	24

1.2.1. 공동체활동 (활동했거나 하고 있는 공동체들을 적어주세요.)

1.2.1.1. 아랫집, 동물, 사랑채, 홍성키키

1.2.2. 출자활동 : 위 표 참조

1.2.3. 이용활동

1.2.4. 연대활동

1.2.5. 운영활동

1.3. 빈고활동상

이름	출자활동상	이용활동상	운영활동상	연대활동상	공동체활동상	총계
2023	1	1	1			3
2024	1					1

빈고의 태동과 탄생 (08~11)

- 해방촌 게스트하우스 빈집과 빈마을에서 빈고에 대한 아이디어와 필요성이 제기됨
- 빈고를 위한 여러 논의와 여러 사건 끝에 빈고가 탄생함
- 빈집들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빈고의 초석을 놓음

- 2008년 빈집 시작. 빈고의 씨앗
- 2009년 빈고 준비 논의
- 2010년 빈고 시작. 빈마을금고 취지문
- 2011년 잉여금분배 원칙 논의

빈고의 성장과 확장 (12~17)

- 빈집을 넘어 가게, 사무실 공간 등으로 확장
 - 해방촌을 넘어 청주, 부산, 대구 등지로 확장
 - 은행으로서의 정체성 확립하고 빈고선언문 채택
 - 건강보험계, 빈땅조합 등의 새로운 실험 시작
-
- 2012년 빈마을을 넘어서 확장
 - 2013년 청주 공룡 마을카페 이따 시작
 - 2014년 공동체은행 빈고로 명칭 수정
 - 2015년 건강보험계 시작
 - 2016년 빈고선언문 채택
 - 2017년 빈땅조합 시작

빈고의 정비와 성숙 (18~25)

- 빈마을 해소와 전국 네트워크화 진행
 - 대표, 운영위원 체계와 온라인 조직으로 정비
 - 뉴스레터, 홈페이지 개편
 - 갈등탕비실 시작, 감사 활동 체계화, 이용활동팀 도입
 - 조합원핸드북, 빈고활동상 등 정비
 - 빈고 책 <자본의 바깥> 출간
-
- 2018년 해방촌 빈마을 종료
 - 2019년 흥성 키키 완공
 - 2020년 대표, 운영위원, 책임활동가 체제로 변경
 - 2021년 갈등탕비실 시작
 - 2022년 <빈고 조합원 핸드북> 제작. 공통계 시작
 - 2023년 빈고활동상 개편
 - 2024년 뉴스레터 개편, 홈페이지 개편
 - 2025년 빈고 책 <자본의 바깥> 출간

빈고의 전환?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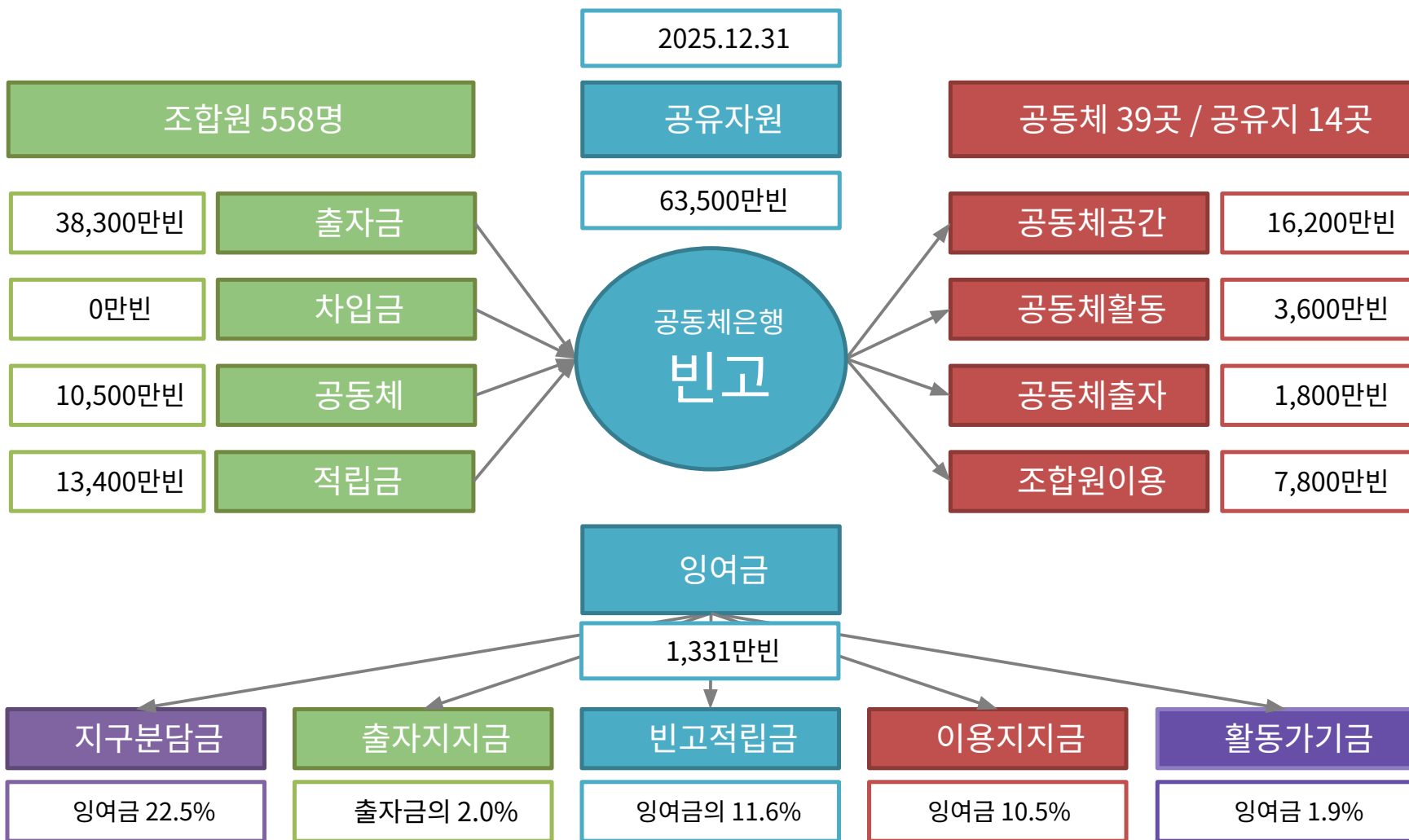
- <자본의 바깥> 출간 이후 40번의 북토크
 - 80명의 신규조합원, 1억3천 이상의 출자금 증가
 -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활동의 필요성
 - 지역 거점과 지역 조합활동의 필요성
 - 커먼즈은행 네트워크의 가능성 - 희년은행 도토리회
 - 000u.net 의 활용 방안
 - 재정시스템의 업그레이드 필요성
 - AI 시대에 따른 변화
-
- 전국 온라인 조직으로의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 새로운 공동체들의 생성의 어려움
 - 개인 조합원들이 늘어나는 경향
 - 지역별 조합원 모임의 필요성
 - 자본의 바깥 이후

빈고 공유지 : 역대 공동체공간

구분	공간 수	이용금액	비율
빈집	20 곳	704,000,000 빈	40%
주거공동체	19 곳	538,500,000 빈	31%
단체	14 곳	264,000,000 빈	15%
상점	11 곳	246,020,000 빈	14%
총계	64 곳	1,752,520,000 빈	100%

구역	공동체공간	이용금액	비율	구역
서울 해방촌	24 곳	728,100,000 빈	42%	용산 용산동2가
서울 기타	20 곳	402,820,000 빈	23%	마포, 은평, 서대문, 영등포, 용산, 종로, 동대문, 관악
충청권	8 곳	246,000,000 빈	14%	청주, 홍성
경인권	4 곳	100,000,000 빈	6%	부천, 양평, 일산, 인천, 남양주
전라권	3 곳	97,000,000 빈	6%	해남, 순천, 구례, 진안
경상권	3 곳	40,000,000 빈	2%	대구, 부산
강원권	2 곳	138,600,000 빈	8%	강릉
총계	64 곳	1,752,520,000 빈	100%	총계

빈고 현황



빈고 공유지=공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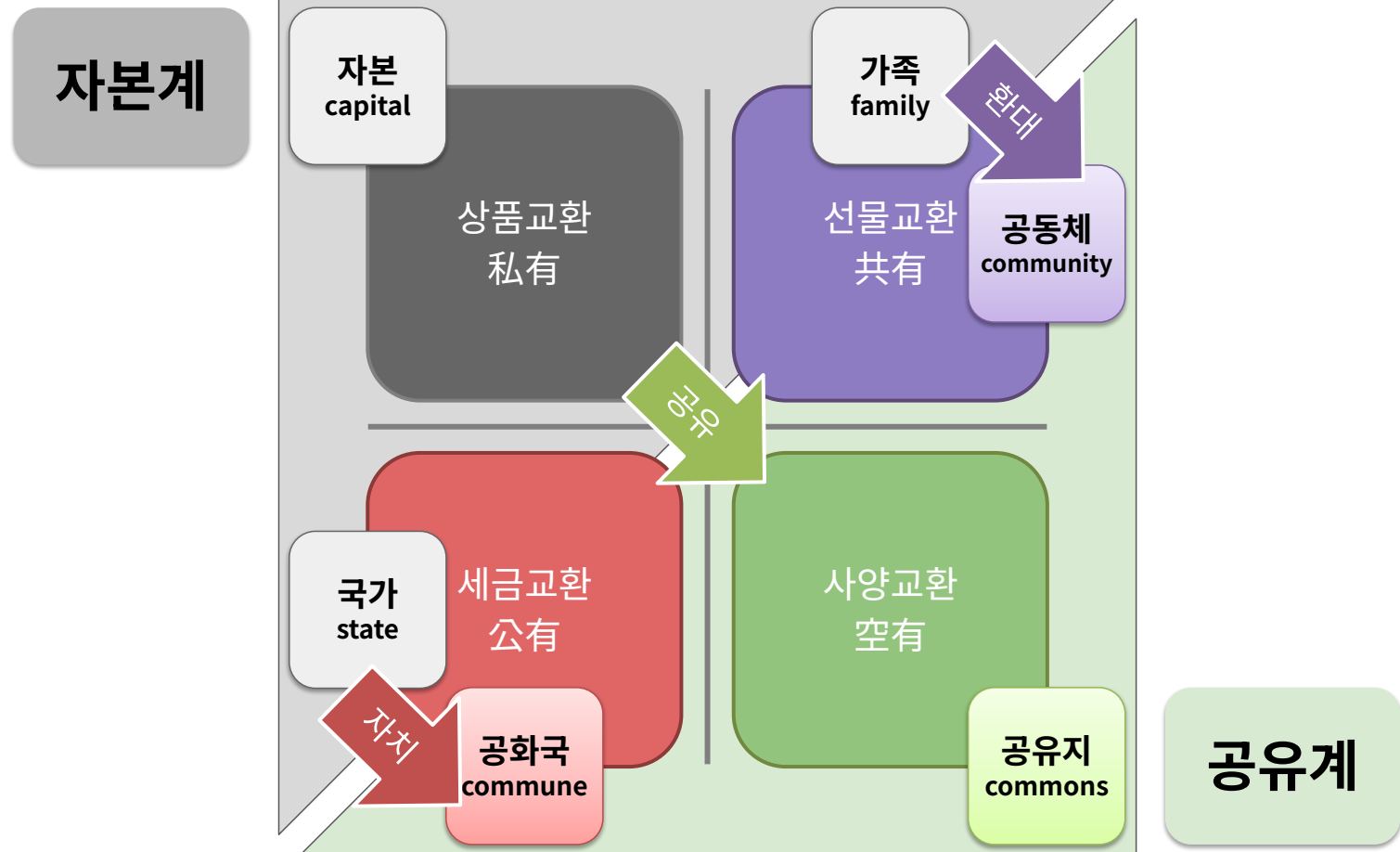
공유지				
공유자원	비주거공간			
예치금	공용	들		
		연구자의집	홍성빈 망	카사모
	읽기의집		경의공유지 의공유지	
	주거공간			
	공유주거협동조합	이층집		
		명류동쓰리룸		
		웹자족		
	조합원이용		공동체활동	
	출자자이용	공동체회 원	두물머리	공동체 T 인

공유자				
출자자		적립금		
소액 출자자 합계	출자자 1		출자지지금	
	출자자 2		빈고적립금	
출자자 3	출자자 6	출자자 8		당기잉여금
	출자자 7	출자자 9	활동가... 이용 지구...	
		출자자 10	출자자 11	공동체
출자자 4	출자자 12	출자자 13	빈당조합	
	출자자 14	출자자 15		건강계
	출자자 16	출자자 17		따로또같이 기타 공동장...
출자자 5	출자자 18	출자자 19	스튜디오 402	
	출자자 20	출자자 21	홍성키트	
	출자자 22	출자자 23	해방촌사 람들	
출자자 24	출자자 25	출자자 26	공유은... 파도	
출자자 27	출자자 28	출자자 29	공유은... 파도	
출자자 30	출자자 31	출자자 32	공유은... 파도	

빈고의 1년 스케줄

- 1월 : 총회준비위원회, 건강계 총회, 하반기 감사, 활동계획 수립
- 2월 : 총회 개최, 공동체활동계획, 공유지계획
- 3월 : 운영위원교육, 활동계획 수립, 조합원 교육
- 4월 : 1분기 감사
- 5월 : 조합원소풍
- 6월 : 빈땅캠프
- 7월 : 상반기 평가와 감사, 이용활동 점검
- 8월 : 여름여행
- 9월 :
- 10월 : 3분기 감사, 조합원소풍
- 11월 :
- 12월 : 빈고 활동가대회, 활동평가

빈고의 3대 가치 : 공유 자치 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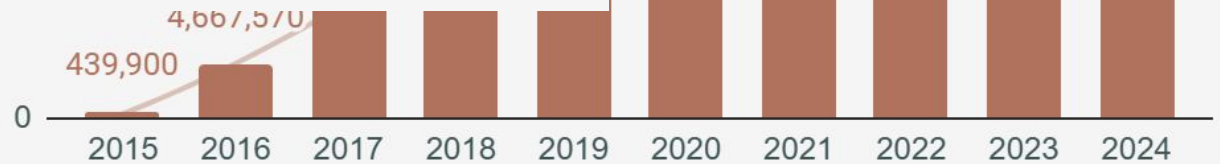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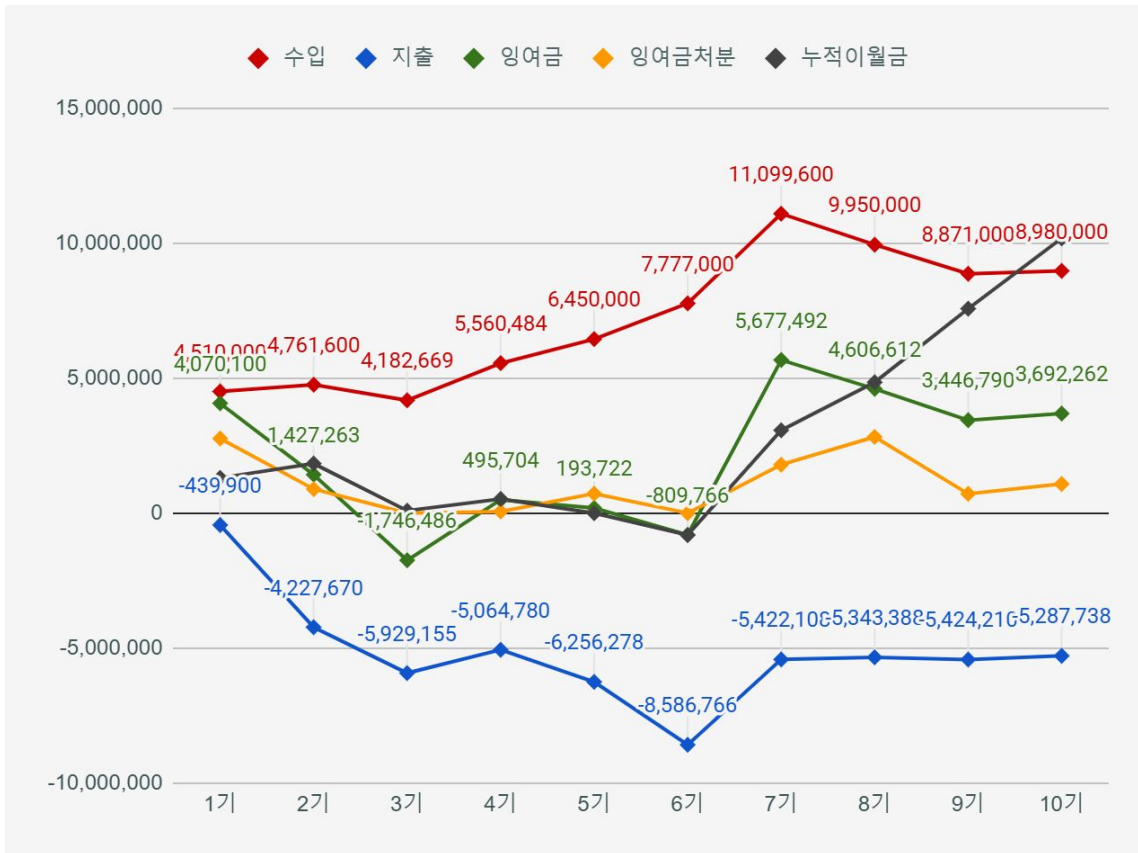


빈고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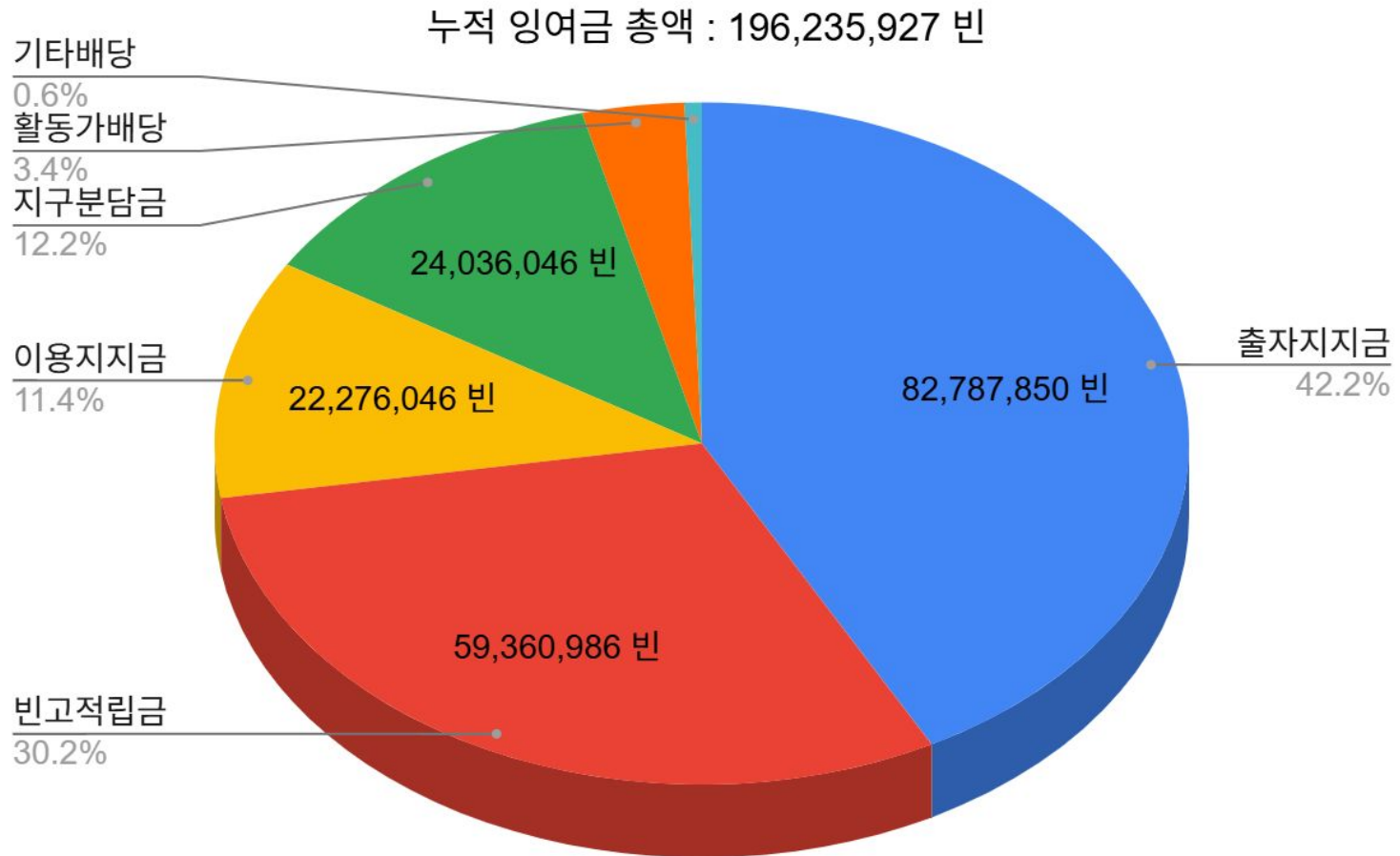


- 출자내역 확인
- 이용활동
- 연대활동
- 회의록
- 재정현황
- 뉴스레터

빈고 건강계



누적 잉여금 분배



빈고 조합원 어떻게 살 것인가?

빈고의 실천은 어쩌면 연극과 유사한 것일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자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우리는 자본수익에 기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연극을 해보기로 한다. 이곳이 자본주의가 아닌 것처럼, 각자 자본이 없거나, 자본이 있어도 자본수익에 기대지 않기로 설정한다. 연극을 하고 있을 때만큼은 다른 세상을 사는 것이다. 물론 이 연극은 끝날 수 있다. 하지만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지만, 또 다시 연극을 시작할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연극은 아주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 어떤 연기자는 연극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는 일정 정도의 자본과 자본수익을 아니 어쩌면 빚을 남기고 떠날 것이다. 이제 그는 정말 자본과 자본수익도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자본은 더 이상 자본이 아니라 다음 연기자를 위한 공유지가 된다. 그는 성공적인 연기를 수행했고 완성했다. 그가 살았던 세상은 자본주의일까 아닐까?

혼양	케이시	사슴	재
2015-12-06	2018-09-20	2020-05-22	2022-12-19
김환수	백련	일농	여농
2023-05-26	2022-03-18	2023-08-09	1993-09-11
별음자리표			
2021-03-24			
복돌이	동글이	러니	빙거
동물 조합원			

빈고 평등 약속문

이 평등약속문은 빈고의 모든 조합원이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안전한 공유지를 만들어가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약속문은 빈고의 조합원이 함께하는 온·오프라인의 모든 회의, 행사, 소모임, 커뮤니티 공간 등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우리는 평등한 주체입니다.

출자금 규모나 활동 기간을 포함해 나이, 성별,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장애·병력, 가족형태, 국적, 인종/민족, 종교, 학력, 사회적 지위 등과 관계없이 모두의 존엄을 동등하게 존중합니다.

2. 우리는 평등하게 소통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지하고 기본적으로 경어를 사용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공평한 발언·참여 환경과 접근성을 함께 점검합니다.

3. 우리는 폭력과 혐오에 반대합니다.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성차별을 비롯한 모든 폭력에 반대하며, 접촉·촬영·공유·호칭·개인정보는 사전 동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혐오 표현과 정상성 강요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4. 우리는 자유롭게 문제제기하고 함께 책임집니다.

불편함을 말할 권리를 존중하며, 차별과 배제에 대해 자유롭게 문제제기하고 공동으로 대처합니다. 문제제기를 받은 사람은 열린 태도로 받아들이고 시정합니다.

5. 우리는 우리의 관계망을 공유지로 돌봅니다.

평등하고 안전한 관계 맺기를 중요한 공유지로 여기고, 이 약속을 실천하며 새로운 평등의 조건을 함께 넓혀갑니다.

빈고 선언문 읽기

공동체은행 빈고

빈고

출자

이용

연대

운영

공동체은행 빈고 선언문

우리는 돈이 있을 때도 은행으로 가고, 없을 때도 은행으로 간다. 돈이 남는 사람은 은행에 예금을 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은행으로부터 필요한 돈을 대출받을 수도 있다. 은행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서, 양쪽 모두를 만족 시키는 편리하고 합리적인 서비스다. 은행은 어떤 위기에도 지켜져야 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의 흔들림 없는 기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우리는 정반대가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미 짜여진 은행 시스템 속에서 선택의 여지 없이 종속되어 있다. 우리는 은행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은행 시스템 내부의 닫힌 화폐 흐름이 잠시 우리의 계좌를 거쳐 갈 뿐이다. 우리가 남는 돈을 적절히 보관하고 활용할 다른 방법이 있는가? 우리가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 우리의 돈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디에 투자하는지 결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 누가 우리의 이자율과 투자처와 신용등급과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가? 우리는 도대체 언제 이 시스템 속에서 살아갈 것을 동의했던 말인가? 다른 대안은 정말 불가능한 건가?

은행이 안정적이라고? 그건 일차적으로는 국가가 안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가 그럴 수 있는 것은 국가가 국민 즉 우리로부터 세금을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수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이 수익성이 높다고? 그것은 일차적으로는 은행이 수익성 높은 거대자본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대자본의 수익성이 높은 것은 거대자본이 노동자와 소비자 즉 우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착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은행이 안정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벌고 있다면, 결국 그것은 모두의 주머니를 텅 것에 지나지 않는다.

